

道峰水落一高陵
도봉수락한 높은 언덕에

中有仙關紫氣蒸
그 가운데 선관에 붉은 기운이 쪼는구나

花樹繁陰村自邃
화수의 번화한 그늘 마음이 깊숙하고

墓碑新建日如升
묘비도 새로 세우니 해가 뜨는 것 같구나

後人香火宜殷奠
후손들의 향화는 전으로 받드는 게 마땅하고

君子攸芋拓舊勝
정승님 계시는 곳에

更把深樽瞻海屋
다시 술잔 들고 해옥(海屋)을 쳐다보니

屋籌交錯也乘乘
옥주(屋籌)가 쌓이고 쌓여 점점 더 더해지네

靑谷
○○○